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건의

황인홍 군수 일행, 태권도원서 열린 시·군 현안 공유 자리서 설립 당위성·염원 피력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회의 차 태권도원(일여현)을 방문한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회장 김두봉) 회원들을 찾아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건의했다.

당초 이 자리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14개 시·군 노인회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시·군 현안과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지회는 참석자들에게 사관학교 설립 추진의 당위성과 염원을 피력하며 '제20대 대선공약 채택 건의문'을 전달, 이를 연합회 명의로 채택해 각 정당 및 후보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태권도를 통한 국익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한류문화 영토 확장,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은 "사관학교 설립이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천년의 비상을 이룰 동력이라는 데 13개 시·군 노인회가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며 국가 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 기관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 명의의 건의문 채택과 설립지지 서명 동참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태권도원을 수련과 경기, 체험, 교육 등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라며 소개한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정진욱 위원장은 "이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무주, 더 나아가 전북이 진정한 태권도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주가 나서 정부 차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장단의 깊은 관심과 전라북도연합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회의 차 태권도원을 방문한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회원들을 찾아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를 건의했다.

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로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U-프로젝트의 핵심 사업과 출구 전략은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태권도가 국기(國技)인 만큼 설립주체(Main)는 국립으로 하되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부지 제공과 사업비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4월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여론 형성 기반을 다

지고 있으며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2.4.)과 국기원(3.9.), 대한태권도협회(3.31.),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8.12.)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서 사관학교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7월 31일에는 정치권에 제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원을 품은 살천면, 구원동, 백운산 지명에 담긴 유래만 봐도 무주군은 예로부터 무예의 기운이 넘치는 땅이었다"면서 "태권도 성지 무주를 찾아주시는 회장님들 모두가 그 비상한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이 연합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정부사업으로 당연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 선정

무주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2년간 잔류농약 분석기기 구입예산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라

북도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선정됐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2년간 잔류농약 분석기기 구입예산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들어선다. 2023년 구축이 완료되면 관내 농업인들은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PLS 제도에 대응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조정해 안전 농산물 출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공공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안전성이 확보돼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농약 과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자연 환경 지킴이 역할도 기대된다. /무주=전문선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장수군, 계북면 발전방향 논의

장영수 군수, 열린군수실서 불편사항 청취·해결방안 마련키로

장수군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열린군수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9일 열린군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 하에 김종열 계북면 노인회장, 송창점 주민자치위원장, 송동훈 이장협의회장 등 계북면 주민들과 함께 계북면 역점사업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계북면 공영주차장 및 인도 설치 ▲이용소방대 소방 차고지 신축 ▲대표경로당 편의개선 사업 등이다.

송창점 주민자치위원장은 "계북면 면사무소 앞 인근 소재지에 인도가 제

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보행을 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계북면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관련 담당부서와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면밀히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주시고, 직접 열린군수실까지 찾아와주시는 계북면민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에서도 계북면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가득

진안군은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대해 ▲진안군의 게스트하우스의 숙박시설은 성인 1인 기준 1만원, 다목적실 5만원으로 최대 7일까지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높은 피로감에 지쳐있는 청장년의 백신접종 80% 감면과 ▲진안고원 골프연습장 타석 이용료 50%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펴고 있다.

또한 내달 3일까지 실시하는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종 14일 경과 후 사

적모인 인연제안을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온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콜센터1339를 통해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사전예약을 적극 홍보하여 백신접종을 끌어올리기에 힘쓰고 있다.

사전예약을 실시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은 본인이나 원하는 위탁의료기관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mRNA 백신으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접종예약기간이 지난 대상군에 대해서도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9월 10일 0시 기준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조사발표 결과 접종완료 59.07%로 전라북도 내에서 접종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고원물·로컬푸드 참여 확대 음·면 순회 홍보

진안군은 관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오는 10월 8일 운영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이하 '진안고원물')의 입점농가 확대를 위해 음·면 이장회의 순회홍보에 나섰다.

이번 순회 홍보는 진안고원물 운영 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9월 중 6개 읍·면을 10월 10일까지는 나머지 5개 면을 순회하며 이장단 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진안 로컬푸드 납품방법 및 진안고원물의 입점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 형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진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연도별 매출현황과 참여 중소 농가의 매출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로컬푸드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신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신규 농가의 납품계약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모바일 쇼핑 시장확대에 따라 운영을 앞둔 진안고원물과 관련해서는 관내 농가 및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위해 쇼핑물 구축과 운영부터 홍보·마케팅까지 군에서 직접 대행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타 시군의 성공사례, 입점신청에 대한 홍보로 이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시장 상인대학 수강생 모집

장수군은 오는 17일까지 장수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기업가 역량 강화를 위해 '장수시장 상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수시장 상인대학은 장수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직접 도시재생 모델 발굴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9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장수시장 내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기업가 역량 ▲마케팅 ▲스토리텔링 ▲디자인 전략과 선진시장 견학 등 심화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참가인원은 과정별 15명~20명 이내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최소화 해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장수시장 상인 및 관내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신청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장수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도시재생지원센터(353-997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어린이 식생활 개선 위한 영양 교육

진안군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22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유연적으로 대응하며 기관 요청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남긴 식판 속 식재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별한 식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든 닭가슴살 오색 토끼야채 제공해 컬러푸드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

나누리 센터장은 "체험을 통한 학습은 영양사업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